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배병인 |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이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에 따른 내생적 결과라는 관점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와 극우 정당 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짐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어 왔다. 그러나 극우 정당 지지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주목하는 기존의 논의들은 극우 정당 지지율의 국가별 편차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해 왔다. 이는 극우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들이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갖는 호소력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포퓰리즘의 대중적 호소력이 민주주의의 퇴조라는 조건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개별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질(質)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척도(democracy barometer)' 데이터를 토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의 질과 극우 정당 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척도 점수와 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일관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이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에 따른 내생적 결과임을 확인시켜 준다.

주제어: 극우 정당, 극우 정당 지지율, 포퓰리즘, 민주주의,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I. 서론

2017년 9월 치러진 독일 연방의원 선거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 4기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극우 정당의 약진이 일종의 유럽적 현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반 이민주의와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당이 약 13%의 득표율로 원내 제 3당으로 급부상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극우 정당이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이변을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2013년 창당된 이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창당 이듬해인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 7%의 득표율로 유럽의회에 진출하였고, 2016년 치러진 독일 주 의회 선거에서는 10%가 넘는 지지율로 2개 주에서 의석을 확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김면희, 2016). 그러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연방의회 진출은 단지 독일의 정치적 변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극우 정당의 약진이라는 현상의 연장선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유럽적 의미를 갖는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 등 극우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과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서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집권을 넘보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가히 유럽적 현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낳는 기초가 되고 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기성 정치 질서에 대한 반감은 기존의 유럽 민주주의 질서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약진은 유럽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외생적 충격’으로서가 아니라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에 따른 ‘내생적 결과’라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극우 정당은 기성 정치질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공략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통해 약진하고 있으며, 정치적 전략이자 담론으로서의 포퓰리즘은 기존 민주주의 질서의 위기라는 토양 속에

서 성장하기 때문이다(Katsambekis, 2016; Mudde, 2016). 따라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와 이민 문제 등 현재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유럽 시민이 정치적으로 우경화된 결과라기보다는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극우 정당이 선점한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 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도와 극우 정당 득표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통상 유권자 수준의 투표 행태에 주목해 온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은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개별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구현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통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속성을 지칭하는 범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동일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치, 대표성과 책임의 원리 등이 구현되는 정도는 상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질(質)은 국가별,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민주주의 척도(democracy barometer)’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의 변동과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Merkel et al., 2016).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척도와 극우 정당의 득표율 사이에는 일관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변동은 유럽 민주주의의 쇠퇴에 따른 내생적 결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III절에서는 대안적 접근 방법으로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에 따른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을 설명하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한다. IV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선거 데이터와 민주주의 척도 데이터를 통해 유럽 민주주의의 쇠퇴와 극우 정당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 V절은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발호가 전혀 새로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반 파시스트 정당들의 발호를 제외하고도, 2차 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유럽에서는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가히 ‘극우 정당의 물결’이라 칭할 만한 시기가 있었다(von Beyme, 1988). 이 중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이른바 ‘제3의 물결’ 시기에는 특히 극우 정당의 정치적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극우 정당의 선거 득표율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기성 정당과 더불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도 하였다(de Lange, 2012). 물론 아직 유럽의 극우 정당이 주류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선거에서 유럽 극우 정당의 평균 득표율은 10%대에 그치고 있고, 2014년의 유럽의회 선거에서와 같이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이변도 있었지만 유럽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주변부 정치세력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Halikiopoulou and Vasilopoulou, 2014; Mudde, 2007).

그러나 유럽의 각종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과거에 비해 약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논의로 대별할 수 있다(Golder, 2016). 수요 측면의 논의가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공급 측면의 논의는 극우 정당이 향유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주목한다. 요컨대 수요 측면의 논의가 특정 계층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향으로부터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도출하고 있다면, 공급 측면의 논의는 극우 정당의 정치적 성장이 특정 정치 제도적 조건과 함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세계화와 탈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에서 낙오된 사회적 계층들의 경제적, 사회 심

리적, 문화적 불안감이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된다고 본다. 이들 낙오 계층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세계화와 탈산업화를 추진하는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극우 정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Betz, 1994; Minkenberg, 2000). 이들의 경제적 불안감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실업과 이민자의 문제를 강조한다. 교육 수준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만성적인 실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 노동자와의 일자리 경쟁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반-이민자 정서를 기초로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는 극우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Ivarsflaten, 2008; Lubbers and Sheepers, 2002; Norris, 2005; Rydgren, 2008).

이상의 연구가 급격한 사회변동이 야기하는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불안감에 주목하고 있다면, 여타의 연구들은 문화적 요인, 특히 탈산업화와 탈근대화 이후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 가치체계에 대한 반발이라는 차원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을 설명한다(Ingelhart, 1977; Ingelhart and Norris, 2016). 이에 따르면 탈산업화와 탈근대화의 과정은 개인의 자유와 다문화주의 등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적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의 확산 과정임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여 전통적인 가치의 고수를 주장하는 “조용한 반-혁명(silent counter-revolution)”의 과정이기도 하다(Ignazi, 1992; Ingelhart and Norris, 2016).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의 고수를 주장하는 계층들은 유럽의 정치 질서가 구현하고 있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또는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반발로 민족주의 내지는 순혈주의(nativism)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 주목하는 이상의 연구들은 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상반된 결론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경제적 불안감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는 연구들의 경우 실업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는 연구와(Golder, 2003; Jackman and Volpert, 1996; Swank and Betz, 2004),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연구(Arzheimer and Carter, 2006; Bustikova, 2014;

Lubbers and Sheepers, 2002; Lucassen and Lubbers, 2012)가 혼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조용한 반-혁명’을 강조하는 이론의 경우 장년 남성층을 중심으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Ingelhart and Norris, 2016), 여타의 연구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남성 계층에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Arzheimer, 2009; Evans, 2005; Givens, 2004; Lucassen and Lubbers, 2012).

이러한 불확정성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경제적, 문화적 정향성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Golder, 2016). 이들 연구들은 공히 사회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실업과 이민자, 다문화주의 등의 문화적 정향성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가를 검토하는데 주력해 왔다. 문제는 이들 문제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실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자에 대한 태도 문제에 있어서 유럽의 각종 사회여론 조사는 반-이민자 정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만, 반-이민자 정서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이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라 할지라도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으로 반-이민자 정서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Blinder et al., 2013). 이러한 상쇄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극우 정당에 선택적 친화성을 보이는 유권자가 실제로는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각종 사회여론조사에서 극우 정당에 선택적 친화성을 보이는 유권자의 비중은 국가별로 큰 편차가 없는 반면, 국가별 극우 정당 지지율에서는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Eatwell, 2000; Mudde, 2010; Van Der Brug et al., 2005). 유권자의 수요가 극우 정당 지지율의 편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유권자의 잠재적 수요가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특정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극우 정당 지지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극우 정당이 향유하는 국가별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수요 측면의 논의들이 노정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다. 이에 따르면 극우 정당 지지의 국가별 편차는 선거제도와 정당경쟁구조의 특성 등 주변부 정치세력으로서의 극우 정당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의 존재 여부로 설명된다. 예컨대 선거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는 국가보다 극우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Givens, 2005; Norris, 2005). 정당경쟁구조의 차원에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공간에서 기성의 좌·우 정당들이 상호 수렴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주류 우파 정당이 중도적 입장으로 이동할 때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Abedi, 2002; Carter, 2005; Kitschelt, 1997). 기성 정당들이 상호 수렴됨에 따라 이들이 대변하는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외부에 존재하는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대안 정당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 주목하는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공급 측면의 논의들 또한 경험적으로 일관된 결론을 제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경우 극우 정당의 정치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양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Arzheimer, 2009; Arzheimer and Carter, 2006; Bustikova, 2014). 기성 정당들이 정책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수렴됨에 따라 극우 정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논의 또한 논리적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는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못한 상태이다(Arzheimer and Carter, 2006; Spies and Franzmann, 2011).

이러한 경험적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극우 정당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이념 정당이면서 동시에 ‘항의 정당’(protest party)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제도나 기성 정당의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수렴과 같은 요인들이 극우 정당의 정치적 성장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우호적 환경이 극우 정당에 대한

실제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향의 투표가 결집되는 특성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극우 정당은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Kitschelt, 1997).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럽의 극우 정당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 이데올로기는 유지한 상태로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복지주의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Mudde, 2007; Rovny, 2013; Rydgren, 2005). 포퓰리즘이 기성 정치 질서에 대한 향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는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극우 정당이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의 대중적 호소력을 갖느냐가 극우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의 편차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퓰리즘의 대중적 호소력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III.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와 극우 포퓰리즘

유럽의 극우 정당은 이데올로기적 구성의 측면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와 급진주의(radicalism), 그리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공통된 특징으로 한다(Golder, 2016). 인종주의(racism)나 순혈주의(nativism), 국수주의(chauvinism) 등의 형태로 표출되는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권위주의적 재편을 강조하는 급진주의 이데올로기가 극우 정당의 정치적 지향성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포퓰리즘은 이들의 주장에 대중적 호소력을 가미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Betz, 1994; Mudd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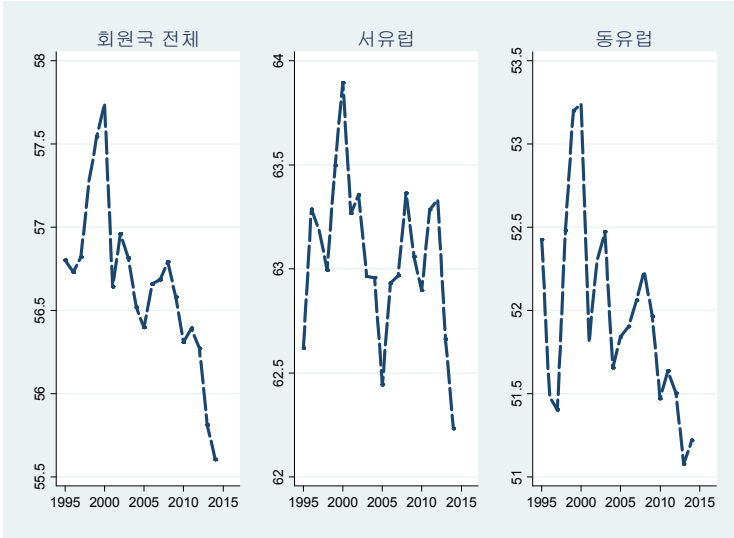
포퓰리즘은 자기 완결적인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여타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변종하는 일종의 ‘연성 이데올로기(thin ideology)’로서, 정

치적 갈등구조를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 세력과 대중 사이의 대립으로 단순화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권력 행사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Betz and Johnson, 2004; Mudde, 2004). 포퓰리즘이 강조하는 대중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고, 특정의 계급적, 인종적, 문화적 집단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적 경향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는 포퓰리즘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비판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다(Canovan, 1999; Mudde and Kaltwasser, 2013).

대중의 직접 통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역할을 엘리트의 선출과 교체로 제한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는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슈페터(Schumpeter) 이래로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포퓰리즘과의 대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정립시켰던 이유이자(Riker, 1982; Schumpeter, 1957), 포퓰리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뛰어 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는 최근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Laclau, 2005). 다른 한편, 이러한 긴장 관계는 포퓰리즘의 대중적 호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함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포퓰리즘의 근본적 속성이 '비민주적인 자유주의 질서(undemocratic liberal order)'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로 대체할 것을 주창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Mudde, 2016).

이러한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유럽의 극우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갖는 호소력은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충분히 민주적인가에 따라 상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충분히 민주적인가 하는 문제는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포퓰리즘의 대중적 호소력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에 불만을 표출하는 유권자들의 비중에 비례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고 있느냐와 함수 관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약진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민주주의 또한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퇴조 경향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이 시기 동안 유럽사회이론조



자료: Merkel et al.(2016).

〈그림 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 추이(1995~2015)

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불신과 불만을 표현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상승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른바 유럽 민주주의의 ‘탈구(disconnect)’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Foa and Mounk, 2016). 특히 2008년 이후 유로존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Armingeon and Guthmann, 2014).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은 비단 인식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치, 대표성과 책임성의 원리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측정한 ‘민주주의 척도(democracy barometer)’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Merkel et al., 2016). 민주주의 척도 데이터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정치원리가 어느 정도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100점 만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 변동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는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뚜렷한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1990년대 초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 200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로 권위주의로의 회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동유럽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시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안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뚜렷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이 극우 정당의 약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계량 분석을 통해 이 가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시도한다.

IV. 경험적 분석: 유럽 극우 정당의 득표율 결정 요인

II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유권자 수준에서의 수요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수요 측면의 논의와 공급 측면의 논의 모두 국가별, 시기별로 나타나는 극우 정당 지지율에서의 편차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는 극우 정당의 대중적 호소력을 결정하는 정치적 조건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럽의 극우 정당은 기성 정치질서에 대한 포퓰리즘적 비판을 통해 지지를 확대해 왔다. 비판 이데올로기이자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퇴조라는 조건 속에서 대중적 호소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에 따라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민주주의 퇴조 경향과 극우 정당의 약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국가별, 시기별로 관찰되는 극우 정당 지지율의 편차는 민주주의 퇴조

정향의 국가별, 시기별 편차에 연동된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종속 변수로,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 가설을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분석의 종속 변수인 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2014 CHES(Chapel Hill Expert Survey)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Bakker et al., 2015). 이 데이터는 각 국의 정당을 11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각 정당의 좌우 이데올로기적 척도 점수와 주요 쟁점에서의 입장,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을 기록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극우 정당은 이 데이터가 분류한 11개의 정당 범주 중 ‘급진 우파(radical right)’ 정당을 기초로 하고, 좌우 이데올로기 척도 점수와 다문화주의와 탈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태도 등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극우 정당은 좌우 이데올로기 척도에서 극단적으로 우측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인종적, 민족적 순혈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와 탈물질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 데이터가 ‘급진 우파’로 분류한 정당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분류체계 상 누락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우파와 다문화주의, 탈물질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상위 20%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들을 포함하여 최종 변수를 구성하였다.

독립 변수인 민주주의 척도 점수 외에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II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요 측면의 이론들은 극우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실업 문제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과 기성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대한 불만에 기초한다고 보고 있다(Ivaresflaten, 2008; Ingelhart and Norris, 2016; Lubbers and Sheepers, 2002). 그러나 본 연구가 유권자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에서의 집합 자료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같이 유권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문화적 불안감을 직접적인 변수로 활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경제적, 문화적 불안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적 변수들을 분석의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적 변수들로는 경제 성장률, 실업률,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삼았다. 문화적 불안감의 경우는 보다 복합적인데 여기에는 다문화주의와 탈물질주의 등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합적인 수준에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중 비시민권자의 비중과 사회적 자본, 즉 시민 상호간의 신뢰 수준의 정도를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선거 당해 연도의 값이 아니라 선거 주기 사이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선거 당해 연도에 이들 변수들이 갖는 특정의 값이 극우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 동안 이들 변수들의 누적된 효과가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통제변수로는 좌·우 이데올로기 공간에서 기성 정당의 상대적 편차를 삼았다. 공급 측면의 논의에 따르면 기성 정당이 정책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수렴될 때 극우 정당에 우호적인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된다(Abedi, 2002; Carter, 2005; Givens, 2005; Kitschelt, 1997).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기성 정당이라 할 정당들을 분류하고 그들 사이의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HES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각의 선거에서 전체 평균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정당을 기성 정당으로 분류하고, 이 정당들의 좌·우 이데올로기 척도 점수에서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변수와 변수별 기술 통계,

〈표 1〉 주요 변수와 기술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료 출처
극우 정당 득표율	13.03	5.95	5.95	37.6	CHES
민주주의 척도 점수	56.66	7.42	42.3	74.52	Democracy Barometer
성장률	2.24	2.95	-7.13	11.43	Eurostat
실업률	9.16	3.93	3.5	20.3	Eurostat
재정 건전성	-3.0	3.52	-19.5	5	Eurostat
기성 정당의 좌우 균열	2.08	0.71	0	3.92	CHES
비시민권자 비중	0.08	0.09	0	0.49	Eurostat
사회적 자본	4.92	0.92	3.32	7.02	ESS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출처는 <표 1>과 같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치러진 선거는 총 107회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의 극우 정당은 이 선거에서 평균 13%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최소 6%에서 최대 38%에 이르는 상당한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는 평균 57점을 기준으로 최소 42점에서 75점까지의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극우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연합의 회원국 민주주의의 질이 국가별, 시기별로 변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 분석에서는 이들 변수들 외에 국가별 고정효과와 선거 당해 연도별 고정 효과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추가적인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들로 관찰되지 않는 국가별 이질성과 선거가 치러지는 연도별 이질성이 극우 정당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 변수 중 사회적 자본의 경우 전체 관측값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마지막 두 모형에서만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척도 점수와 극우 정당의 득표율 사이에는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모델 1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척도 점수가 극우 정당의 득표율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의 통계적 신뢰수준은 99%에 달한다. 반면, 여타 통제 변수들의 효과는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론적 예측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일관된 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경제 성장률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 사정이 악화될수록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의 논의들이 강조하는 유권자의 경제적 불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률의 경우에는 5개의 모형 중 3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두 개의 모형에서는 이론적 예측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유권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증가하므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인구 중 비시민권자의 비중 변수에서도 동일하게 확

〈표 2〉 유럽 극우정당 득표율 결정 요인(1996~2014)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민주주의 척도 점수	-0.19* (0.11)	-0.33*** (0.12)	-1.42*** (0.53)	-3.09*** (0.75)	-2.79*** (0.75)
성장률	-0.79*** (0.29)	-0.82*** (0.3)	-0.3 (0.28)	-0.86** (0.41)	-2.23*** (0.65)
실업률	-0.22 (0.2)	-0.37* (0.21)	-0.16 (0.28)	-0.43 (0.38)	-1.02** (0.43)
재정 건전성	0.42* (0.25)	0.44* (0.25)	0.49** (0.24)	0.52* (0.28)	0.41 (0.34)
기성 정당의 좌우 균열	-0.32 (0.94)	0.59 (0.95)	2.93** (1.32)	4.97*** (1.74)	7.80*** (2.16)
비시민권자 비중		25.1** (10.5)	-78.18* (42.21)	-121.85** (57.02)	-30.0 (79.03)
사회적 자본				0.67 (4.89)	7.64 (6.15)
국가별 고정효과	No	No	Yes	Yes	Yes
연도별 고정효과	Yes	Yes	No	No	Yes
N	105	88	88	64	64
R-square	0.22	0.35	0.62	0.72	0.87

자료: 1. 괄호 안은 표준 오차.
 2. *** p<0.01, ** p<0.05, * p<0.1

인된다. 실업률에 비해 비교적 일관되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 주지만, 회귀 계수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번갈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극우 정당의 득표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기성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수렴이 극우 정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공급 측면 논의들의 예측과는 달리 기성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격차가 커질수록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 또한 일관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서는 극우 정당의 득표율과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통제 변수들의 효과가 기존 연구들의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달리 집합 자료를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II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경험적으로 일

관된 결론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가 전혀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회귀 분석의 결과는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이 극우 정당의 지지율을 상승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 준다. 독립변수인 민주주의 척도 점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척도 점수가 10점 상승할 때 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최소 2%, 최대 31%까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 확인되는 극우 정당의 약진 경향을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에 따른 내생적 결과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V. 결론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정치적 약진이 두드러짐에 따라 유럽 민주주의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종주의와 순혈주의,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의 옹호 등 극우 정당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유럽 국가들이 구축해 놓은 민주주의 질서와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정치적 성장이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연성 이데올로기’인 포퓰리즘이 극우 정당의 전통적인 민족주의, 급진주의 이데올로기와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유럽의 극우 정당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포퓰리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Mudde, 2007; Rovny, 2013; Rydgren, 2005).

다양한 변종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 이데올로기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은 기성의 민주주의 질서에 내재한 비민주성을 고발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퓰리즘의 대중적 호소력은 기성의 민주주의 질서가 얼마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구현하고 있는가와 함수 관계에 있다. 1990년대 이후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유럽의 민주주의가 퇴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호소력이 증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매개로 한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은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에 따른 내생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확증해 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차지한 득표율은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와 일관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 정당의 열풍이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유럽 민주주의가 퇴조해 온 결과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극우 정당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투고일자: 2017-11-03 심사일자: 2017-11-11 게재확정: 2017-12-06

참고 문헌

- 김면희. 2016. “독일 극우주의 정치 세력의 성장 요인 연구: 정당 쇠퇴와 정당체제 변화.” 『유럽연구』 34(3). pp. 23-48.
- Abedi, Arim. 2002. “Challenges to established parties: the effects of party system features on the electoral fortunes of antipolitical-establishment part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4): 551-583.
- Armingeon, Klaus and Kai Guthmann. 2014. “Democracy in crisis? The declining support for national democracy in European countries, 2007-2011.”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3): 423-442.
- Arzheimer, Kai. 2009. “Contextual factors and the extreme right vote in Western Europe, 1980-200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259-275.
- Arzheimer, Kai and Elisabeth Carter. 200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right-wing extremist party succes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3): 419-443.
- Bakker, Ryan, Erica Edwards, Liesbet Hooghe, Seth Jolly, Jelle Koedam, Filip Kostelka, Gary Marks, Jonathan Polk, Jan Rovny, Gijs Schumacher, Marco Steenbergen, Milada Vachudova, and Marko Zilovic. 2015. “1999-2014 Chapel Hill Expert Survey Trend File.” Version 1.13. Available on chesdata.eu.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Betz, Hans-Georg. 1994. *Radical Right-Wing Populism in Western Europe*. New York: St. Martin's.
- Betz, Hans-Georg and Carol Johnson. 2004. "Against the current—stemming the tide: the nostalgic ideology of the contemporary radical populist right."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9(3): 311–327.
- Blinder, Scott, Robert Ford and Elisabeth Ivarsflaten. 2013.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how the antiprejudice norm affects policy and party preferences in Great Britain and German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4): 841–857.
- Bustikova, Lenka. 2014. "Revenge of the radical righ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12): 1738–1765.
- Canovan, Margaret. 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47(1): 2–16.
- Carter, Elisabeth. 2005.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Success or Failure?*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e Lange, Sarah L. 2012. "New Alliances: Why Mainstream Parties Govern with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ies." *Political Studies*, 60(4): 899–918.
- Eatwell, Roger. 2000. "The rebirth of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Parliamentary Affairs*, 53(3): 407–425.
- Evans, Jocelyn A. J. 2005. "The dynamics of social change in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y support."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3(1): 76–101.
- Foa, Roberto Stefan and Yascha Mounk. 2016. "The Democratic Disconnect." *Journal of Democracy*, 27(3): 5–17.
- Givens, Terry. 2004. "The radical right gender gap."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1): 30–54.
- _____. 2005. *Voting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er, Matt. 2003. "Explaining variation in the electoral success of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4): 432–466.
- _____. 2016. "Far Right Parties in Europ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9: 477–497.
- Halikiopoulou, Daphne and Sofia Vasilopoulou. 2014. "Support for the Far Right in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olitical Quarterly*, 85(3): 285–288.
- Ignazi, Piero. 1992. "The silent counter-revolution: hypotheses on the emergence of extreme right-wing partie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2(1): 3–34.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elhart, Ronald and Pippa Norris. 2016. "Trump, Brexit, and the Rise of Populism:

- Economic Have-Nots and Cultural Backlash.” HKS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 Ivarsflaten, Elisabeth. 2008. “What unites right-wing populists in Western Europe? Re-examining grievance mobilization models in seven successful cas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 3–23.
- Jackman, Robert and Karin Volpert. 1996. “Conditions favouring parties of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4): 501–521.
- Katsambekis, Giorgos. 2017. “The Populist Surge in Post-Democratic Times: Theoretical and Political Challenges.” *The Political Quarterly*, 88(2): 202–210.
- Kitschelt, Herbert. 1997. *The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clau, Ernesto. 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and New York: Verso.
- Lubbers, Marcel and Peer Scheepers. 2002. “French Front National voting: a micro and macro perspect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25(1): 120–149.
- Lucassen, Geertje and Marcel Lubbers. 2012. “Who fears what? Explaining far-right-wing preference in Europe by distinguishing perceived cultural and economic ethnic thre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5): 547–574.
- Merkel, Wolfgang, Daniel Bochsler, Karima Bousbah, Marc Bühlmann, Heiko Giebler, Miriam Hänni, Lea Heyne, Lisa Müller, Saskia Ruth, and Bernhard Wessels. 2016. *Democracy Barometer Methodology. Version 5*. Aarau: Zentrum für Demokratie.
- Minkenberg, Michael. 2000. “The renewal of the radical right: between modernity and anti-modernity.” *Government and Opposition*, 35(2): 170–188.
- Mudde, Cas. 2004.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and Opposition*, 39(4): 541–563.
- _____.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The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West European Politics*, 33(6): 1167–1186.
- _____. 2016. “Europe’s Populist Surge: A Long Time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25: 25–30.
- Mudde, Cas and Cristóbal Kaltwasser. 2013. “Exclusionary versus inclusionary populism: comparing contemporary Europe and Latin America.” *Government and Opposition*, 48(2): 147–174.
- Norris, Pippa. 2005. *Radical Right: Voters and Parties in the Electoral Marke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ker, William. 1982. *Liberalism against Populis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Rovny, Jan. 2013. “Where do radical right parties stand? Position blurring in

- multidimensional competiti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 1–26.
- Rydgren, Jens. 2005. “Is extreme right-wing populism contagious? Explaining the emergence of a new party famil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4(3): 413–437.
- Rydgren, Jens. 2008. “Immigration sceptics, xenophobes or racists? Radical right-wing voting in six West Europea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7(6): 737–765.
- Schumpeter, Joseph. 1957.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Spies, Dennis and Simon Franzmann. 2011. “A two-dimensional approach to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f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34(5): 1044–1069.
- Swank, Duane and Hans-Georg Betz. 2004. “Globalization, the welfare state and right-wing populism in Western Europe.” *Socio-Economic Review*, 1(2): 215–245.
- Van der Brug Wouter, Meindert Fennema, and Jean Tillie. 2005. “Why some anti-immigrant parties fail and others succeed: a two-step model of aggregate electoral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5): 537–573.
- Von Beyme, Klaus. 1988. “Right-wing extremism in post-war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11(2): 1–18.

Democratic Decline and the Rise of Far Right Populist Parties in Europe:

Electoral Support for the Far Right Parties in the National Elections of the EU
Member Countries Since the Mid-1990s

Byoung-Inn Bai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posits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the rise of far right parties in Europe is the endogenous consequence of the declining European democracy. As the European far right parties have politically risen since the 1990s, so have the scholarly interests in the causes of electoral support for those far right parties. Extant literature, however, fails to address the causes of apparent nation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electoral support for European far right parties, in both of its demand side and supply side variants alike. I contend that the electoral support for far right parties is a function of the degree to which the populist claims espoused by far right parties are appealing to voters, and that the eventual determinant of it is the quality of democracy of a country. Since populism is an expression of the discontent with the extant liberal democracy, voters are likely to lean toward populist claims as democratic quality of a country declines. I examine this hypothesis against the Democracy Barometer data and the national election results of the EU member countries since the mid-1990s. The regression analysis clearly shows that declining democratic quality has positive impact on the electoral support for the European far right parties. This result confirms that the rise of far right parties is an endogenous consequence of, rather than an exogenous shock to, the declining European democracy.

Keywords: far right parties, electoral support for far right parties, populism,
democracy, democratic decline in Europe

